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대학생부문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담은 공동체 공간의 현대적 재해석을 접목한 공동주택 설계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apartment complexes that incorporate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community spaces that embody the local identity of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장여진*

Jang, Yeo-Jin

김동규**

Kim, Dong-Gyu

Abstract

The regional identity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s not reflected in apartment houses. This study aims to design a space that actively reflects Jinju's regional identity in apartment houses. First,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courtyard,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Jinju community, and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implemented this. Based on this, various 'community courtyard' are considered and derived as spaces, and apartment housing design reflecting 'community courtyard'

키워드 : 지방 중소도시, 지역 정체성, 공동체 공간, 현대적 재해석, 공동주택

Keywords :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Regional Identity, Community Space, Modern Reinterpretation, Apartment Hous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진주는 서부 경남 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다른 도시들에 비해 외부와 교류 및 이동이 적어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 중심의 사회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Lee, 2004) 또한 진주는 신석기 시대부터 남강 중심으로 농경지를 이룬 곳으로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정착 생활을 이어왔다. 농경지를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강조된 사회 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동체성이 강한 문화는 근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현대 들어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와 공간은 줄었으나 지역성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진주는 농경사회로 집단적 구성이 이루어지며 공동체적 성격을 띠는 지역이다, 진주의 농촌 마을에는 아직까지도 당산제를 지내며 당산나무 아래 마당에서 공동체 활동이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처럼 농촌사회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진주는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는 공간이 중요하며, 이는 공동주택에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이 지역의 전통적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활용하고, 농경사회 문화를 현대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공간을 도입하여 진주의 지역성을 강화한 공동주택 설계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진주의 지역성과 역사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대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통적 공간 구성 방식, 특히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주거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범위로 설정한다. 마당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서, 단순한 외부 공간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장소로 기능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마당이 현대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국내외의 마당을 활용한 공동체 주거 사례들을 조사 분석한 후 이를 통해 마당이 공동체 주거 공간 내에서 가지는 역할과 가능성을 분석한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기반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통하여 진주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현대 생활 양식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주거 공간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으로 계승한 마당의 전통적 가치와 진주의 지역 정체성을 건축적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대상지 분석 및 사례조사

2.1 대상지 분석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에 위치한 부지로, 과거 진주역이 자리했던 지역에 인접해 있다. 진주역이 과거 철도 교통의 거점으로 기능했으나 KTX 도입으로 이전된 이후, 해당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거점 기능을 상실한 채 활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 일대는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상지 주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학사과정

**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건축사(대한민국/독일)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gkim@gnu.ac.kr)

변은 아직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등 비공식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는 공터가 산재해 있으며, 이는 진주의 지역적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지의 주거 형태는 전통적인 단독주택들이 모여 마을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지역 고유의 생활 방식과 오랜 시간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반영하고 있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남서쪽에는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전통적인 주거 경관을 이루고 있는 반면, 북동쪽으로는 최근 신축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과 현대가 맞물리는 도시 경계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본 지역은 도시 내부의 시간적 층위가 공존하는 장소로써 도시 변화의 흐름을 관찰하고 실험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하기에 적합한 공간적 조건을 지닌다. 또한 옛 진주역 복합문화공원에서 남강에 이르는 공간 축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 구조로 기능하며, 현재 이 축을 중심으로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대상지는 역사적 맥락과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함께 어우러진 곳으로써 공동주택에 전통 요소 ‘마당’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공동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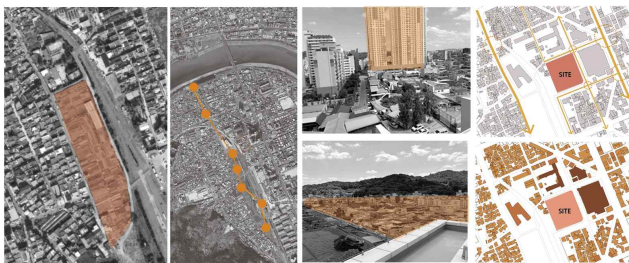


그림1. 진주시 망경동, 대지분석

2.2 국외 사례조사

표1. 국외 마당을 재해석한 공동주택

	호타쿠보 단지(일본) 중정을 통하여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담은 공동체 공간을 규정
	8 House 중정을 중심으로 각 주거마다 덴마크의 전통집처럼 작은 마당이 존재하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 공간으로도 활용

국외에서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당을 재해석한 사례로는 ‘호타쿠보 단지’와, ‘8 House’를 예로 들 수 있다. 호타쿠보 단지는 공동주택이 중정 공간을 기준으로 모여 있으며 이 중정 공간은 확대된 가족의 개념을 담은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8 House의 경우 경사로에 면한 주거마다 작은 진입 마당을 제공하여 공동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

간을 형성하였으며, 덴마크의 옛 전통을 재해석하여 신도시와 자연의 경계 지역에 맞는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형성하였다.

2.3 국내 사례조사

표2. 국내 마당을 재해석한 공동주택

	판교 월든힐스의 테라스하우스 아래집 지붕이 윗집의 마당이 되는 형태로, 각 개인이 작은 마당을 가질 수 있는 주거 공간
	장안 힐스테이트 중앙의 개방된 광장을 통하여 공동체간의 교류가 일어나 문화적 마당의 재해석 공간으로 해석

국내에서는 사례로는 ‘판교 월든힐스의 테라스하우스’와 ‘장안 힐스테이트’가 있으며, 옛 ‘마당’의 성격을 가진 공간이 공동 주택의 중정형 광장으로 재해석 되어 존재하거나, 각 유닛이 마당을 포함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유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당’은 광장의 형태로만 남거나 고층형의 단지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마당의 특성을 고층 공동주택의 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건축계획

3.1 디자인 컨셉

마을은 다양한 주거 유형이 함께 모여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마당을 중심으로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계획은 이러한 평면적 개념의 마당을 현대 공동 주택의 조건에 맞게 수직적으로 재해석하였다. 도시의 고밀화와 한정된 토지 이용에 대응하여, 마을의 공간 구조를 수직적으로 전환하여 공동체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마을의 수평적 이동도 수직적 이동으로 전환되며, 이는 물리적 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관계도 새롭게 수직 공간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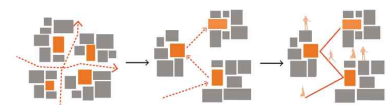


그림1. 마당의 수직화 다이어그램

3.2 컨셉에 따른 매스터디

수직 마당에 관한 컨셉에 맞는 매스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먼저 기존 대지의 보행 동선에 맞춰 매스를 배치하였으며,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입 동선 주변에 휴식 및 쉼터를 함께 조성하였다. 이후 다양한 세대의 특성에 맞게 입주민들을 고려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주거동으로 매스를 형성하였으며, 각 분절된 주거동들은 주거동을 잇는 수직 골목길을 통하여 각 매스의 수직 마당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수직 골목길은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입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외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이 골목길은 마당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조를 고려하여 매스의 높이를 조절하였으며, 매스의 높낮이에 맞춘 매스별 수직 마당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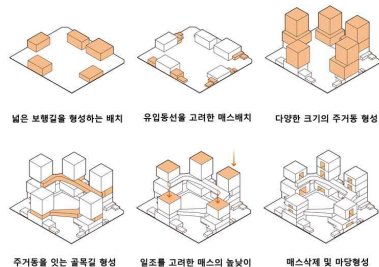


그림2. 매스 프로세스

3.1 진입과 공동체 마당

1층 광장은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단지 중앙 마당의 성격을 지니며, 이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대지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행 동선을 반영하여 광장 주변의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넓은 광장 주변으로 체험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외부로도 열려 있어 입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자연스럽게 드나들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경계 없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도시 내 새로운 소통 모델로서 공동체의 확장 및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림3. 마당이 확장된 평면도

2층부터는 각 매스의 마당과 공유 스마트 팜 공간을 연결하는 골목길을 통하여 주민들 간에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쉼터 등 편의를 위한 시설을 배치하여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마을과 마을 간의 공동체 형성 및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재해석한 이 구성은 각각 분절되어 있던 매스들의 마

당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이다.

3.2 수직적인 클러스터 마당

각 주거동은 한 마을같이 다양한 유닛의 가구가 하나의 수직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수평적 형태의 유닛뿐만 아니라 복층 유닛,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셰어하우스 유닛을 결합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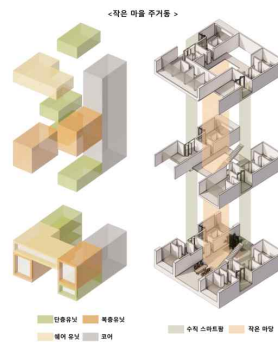


그림4. 수직적 클러스터 마당

주거동의 유형은 두 가지로 작은 마을 주거동과 큰 마을 주거동으로 구분하였다. 작은 마을 주거동은 주로 1인 주거 중심의 유닛들로 여가를 즐기며 개인적 성향을 띄는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였고, 큰 마을 주거동의 경우 1인 주거부터 4인 셰어하우스까지 다양한 성향의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넓은 마당을 배치하였다. 또한 두 주거동 모두 마당에서 보이드와 함께 수직 동선을 구성하여 주거동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그림5. 주거동 평면도

3.3 개인 유닛 마당

농경사회였던 지역적 맥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직적 구조의 스마트팜 공간을 설계하여 지역 문화의 보존과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공간은 전통적인 마당의 역할을 확장한 개념으로, 입주민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이웃과 교환하거나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중심의 커뮤니티 장소로 기능한다. 해당 공동체 공간은 다양한 연령대, 가구 구성, 생활 성향 등에 따라 다채롭게 사용될 수 있으며 땀을 흘리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자

율적 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림6. 스마트팜이 적용된 유닛

두 마을 유닛 모두 스마트팜과 부엌을 가까이 배치하여 두 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이웃이 함께 교류하며 때로는 부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작은 마을 유닛은 1인 주거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구성원을 위한 주거동이다. 이 주거동은 홀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닛으로 작은 스마트팜 공간과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연결하였다. 큰 마을 유닛은 작은 마을 유닛과는 다르게 1인에서 3-4인이 쉼어할 수 있는 유닛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스마트팜 주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유닛이 된다.

작은 마을 유닛 scale:1/350



그림7. 작은 마을 주거동 유닛

큰 마을 유닛 scale:1/350



그림8. 큰마을을 주거동 유닛



그림9. 주거동 내외부 투시도



그림10. 단면도

각 주거동의 높이 차이와 주거 세대로 연결된 경사 골목길, 그리고 주거동의 수직 마당 구성은 그림 10. 단면도와 그림 11. 마스터플랜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차이를 표현하고

자 하였다. 작고 큰 마을의 구성이 높이에 적용되며 각 유닛의 형태도 입면에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스마트팜은 채광을 고려하여 배치하였고 외부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수직 농원의 모습을 띄게 하였다.



그림11. 마스터플랜 계획안

4. 결론

진주의 공동체성과 농경사회를 마당과 스마트팜으로 재해석하여 진주의 지역성이 반영된 공동주택을 계획하였다. 현대사회의 특성이 드러나는 세대 구성을 마을에 적용하여 크고 작은 마을로 유형화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며 마당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삶의 형식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는 진주의 역사적 특성과 공동체성을 보존한 현대적 삶을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안을 도출하였고, 향후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성이 적극 반영되는 공동주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이혜숙. 지역사회운동의 성격과 전개 - 경남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no.64, 2004
2. 강승희, 안재락. 고령자의 자생적 커뮤니티공간 실태 연구, 진주시 망경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21
3. 김병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지의 공간적 특징을 접목한 아파트 계획 : 아파트단지의 대안으로서의 제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3
4. 김예나. 마당의 재해석을 통한 커뮤니티시설 계획 : 옛 가리봉시장 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2
5. 정주애. 마당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거 개방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2013
6. 권선경,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동전 당산제와 목우제”.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faith/story/8900>. 2025년 8월 28일 접속